

강기정 29.2% vs 이용섭 28.3%... 초접전

최대 현안 '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' 꼽아

광주시장

오는 6월 1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,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.2%, 이용섭 광주시장이 28.3%로 0.9%포인트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보였다.

이어 문인 북구청장 6.0%, 장연주 광주시의원 3.1%, 정준호 변호사 2.6%,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위원장 2.1% 순이었다. 기타 인물 5.8%, 없음·모름 22.9%였다.

연령별로는 강기정 전 수석은 40대 (38.3%)와 50대(38.9%)에서 우위를 보였고, 이용섭 시장은 18~20대(27.0%)와 60대 (36.8%), 70대 이상(39.1%)에서 앞서나갔다. 30대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 24.3%, 이용섭 시장 25.8%로 팽팽했다.

지역별로 강기정 전 수석은 동구(29.5%), 서구(36.9%), 북구(29.2%)의 지지세가 높았으며, 이용섭 시장은 광산구(30.5%)에서 앞섰다. 남구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 27.4%, 이용섭

시장 27.5%로 0.1%포인트 차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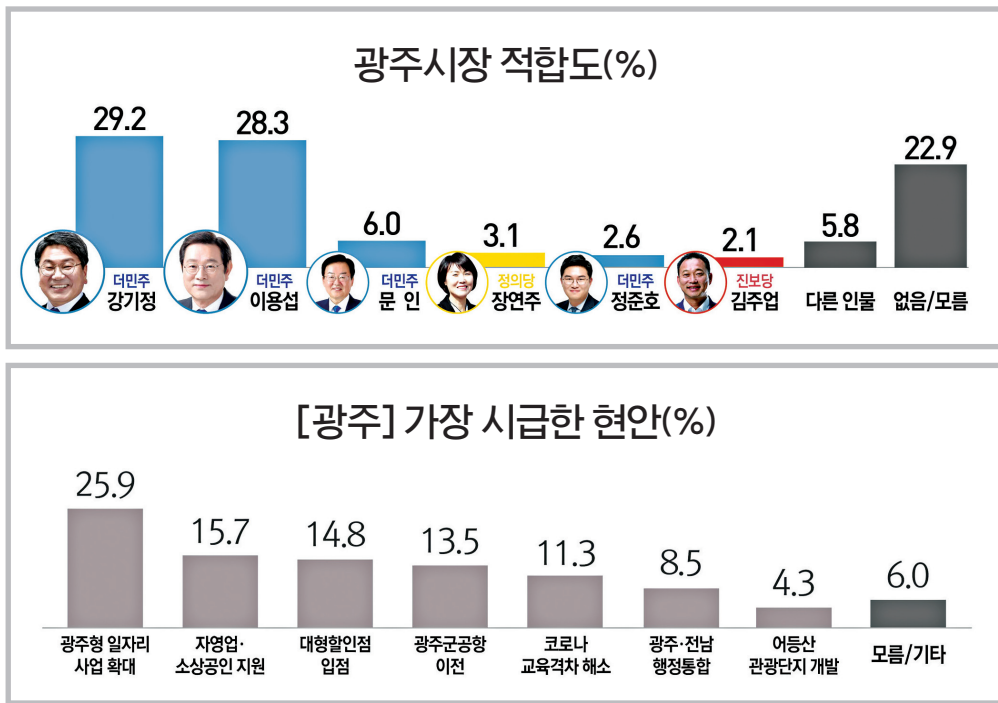
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기정 전 수석 35.7%, 이용섭 시장 33.2%로 2.5%포인트 차로 접전을 펼쳤다. 이어 문인 청장 4.8%, 정준호 변호사 2.2% 순이었다.

이용섭 시장에 대한 직무평가는 긍정 평가가 46.6%, 부정 평가가 41.0%로 긍정률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. 매우 잘못 12.2%, 다소 잘못 34.4%였으며, 다소 잘못함 24.1%, 매우 잘못함 16.9%였다. 모름·기타 12.3%였다.

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확대가 25.9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자영업·소상공인 지원 15.7%, 대형할인점 입점 14.8%, 광주군공항 이전 13.5%,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 11.3%, 광주·전남 행정통합 8.5%,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4.3% 순이었으며 모름·기타는 6.0%였다.

광주·전남 행정·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59.3%, 반대가 21.9%로 시민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.

매우 찬성 28.6%, 다소 찬성 30.7%였으며, 다소 반대 13.7%, 매우 반대 8.2%였다. 모름·



기타 18.8%였다.

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트, 응답률은 9.6%다. 자세한 내용은 전남매일·뉴스1·남도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오선우 기자

김영록 41.4%... 전 계층 지지 '압도적 우위'

저출산·고령화 대책, 일자리 창출 시급

전남도지사

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현 지사가 2위를 차지한 이계호 현 국회의원을 '압도'했다.

김 지사는 '차기 전남도지사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'는 질문에 41.4%의 지지를 받아 다섯명의 경쟁후보군 지지율을 합친 33.1%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8.2%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독주했다.

이 의원 12.0%, 서삼석 현 국회의원(7.4%), 김화진 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(5.2%), 신정훈 현 국회의원(5.0%), 민점기 현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(3.5%) 등 순이었다. 무응답은 20.2%였다.

전 계층에서 김 지사는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남성(41.2%), 여성(41.5%), 40대(40.7%), 50대(47.9%), 60대(53.7%), 70대 이상(45.9%) 등에서 40%대의 지지를 받았다.

다만 18/20대(18.5%), 30대(26.2%)에서는 낮은 지지를 받았다.

권역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서부권(목포·영

암·강진·완도·해남·진도·신안·무안) 46.8%, 동부권(곡성·구례·광양·순천·여수·고흥·보성·장흥) 41.2%로 강세를 보였으며, 광주권(나주·화순·담양·장성·영광·함평)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3.1%의 지지에 그쳤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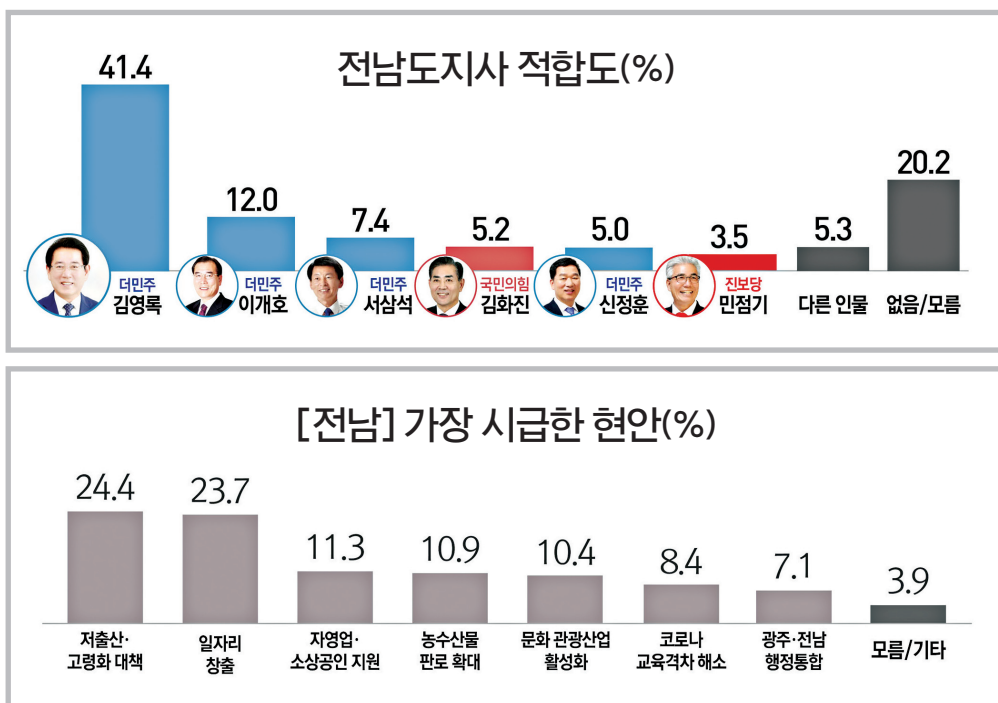
이 의원은 광주권(27.2%), 서 의원은 서부권(15.5%)에서 비교적 선전했다.

김영록 전남도지사 직무평가는 잘함 63.2%, 잘못함 13.7%로 긍정평가가 4.6배 높았다.

전남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부분의 계층에서 저출산·고령화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1~2순위로 꼽았으며, 저출산·고령화 대책은 40대(26.1%), 50대(22.1%), 60대(22.6%), 70대 이상(27.5%)에서, 일자리 창출은 18/20대(33.1%), 30대(28.5%)에서 각각 1순위였다. 행정·경제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이 64.6%로 반대 21.1%보다 3.1배 높았으며 특히 50대·60대·민주당 지지층 등에서 찬성의견이 70% 안팎에 달했다.

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69.3%를 기록 국민의힘 11.3%, 정의당 5.6%, 국민의당 4.7%를 크게 앞섰다.

세대별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



민의힘을 압도했지만 30대 이하 청년세대에서는 40~50%로 비교적 낮았다. 특히 18/20대 남성 그룹에서는 국민의힘이 41.6%를 기록 34.3%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인 7.3%포인트 앞서 눈길을 끌었다.

이번 조사는 전남매일, 뉴스1,남도일보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4~25일 이틀간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(휴대전화 가상번호 100%)으로 진행했다. 통계보정은 2021년 12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p, 응답률은 10.0%다. /길용현 기자

광주시 2022 양대선거 설 특집조사 설문지

- 먼저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?
①번, 만 17세 이하 (= '조사 종료') ②번,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③번, 30대 ④번, 40대 ⑤번, 50대 ⑥번, 60대 ⑦번, 70세 이상
-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?
①번, 동구 ②번, 서구 ③번, 남구 ④번, 북구 ⑤번, 광산구 ⑥번, 다른 지역
- 귀하께서 남성이라면 ①번, 여성이라면 ②번을 눌러주세요.
- 귀하께서는 다음 여섯 사람 중에서 차기 광주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호명은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['보기 ①~⑥번' 로테이션]
①번,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②번,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 ③번, 문인 현 광주 북구청장 ④번, 이용섭 현 광주시장 ⑤번, 장연주 현 정의당 광주시의원 ⑥번, 정준호 현 변호사 ⑦번, 다른 인물 ⑧번, 없음 ⑨번, 모름
- 그럼 다음 여섯 사람 중에서 차기 광주시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호명은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['보기 ①~⑥번' 로테이션]
①번, 김선호 광주 동아여중·여고 관선 이사장 ②번, 박혜자 제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③번, 이정선 광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 ④번, 이정재 광주교육대학교 2대 총장 ⑤번,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⑥번,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⑦번, 다른 인물 ⑧번, 없음 ⑨번, 모름
- 귀하께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①번, 매우 잘못 ②번, 다소 잘못 ③번, 다소 잘못함 ④번, 매우 잘못함 ⑤번, 모름/기타
- 귀하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['보기 ①~⑦번' 로테이션]
①번, 광주형 일자리사업 확대 ②번, 광주군공항 이전 ③번, 자영업·소상공인 지원 ④번, 광주·전남 행정통합 ⑤번,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⑥번,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 ⑦번, 대형할인점 입점 ⑧번, 모름/기타
- 그럼 광주와 전남의 행정과 경제를 통합하는 '가칭' 광주전남 행정·경제통합'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①번, 매우 찬성 ②번, 다소 찬성 ③번, 다소 반대 ④번, 매우 반대 ⑤번, 모름/기타
- 귀하께서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? '국회의석'을 입니다.
①번, 더불어민주당 ②번, 국민의힘 ③번, 정의당 ④번, 국민의당 ⑤번, 기타 정당 ⑥번, 없음 ⑦번, 모름

